

- 주요 뉴스: 연준 보우먼 이사,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할 필요,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여전
 - ECB 렌 위원, 유로존 성장 전망 둔화 위험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
 - 이란,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
 -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, 향후 정책은 연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금주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 관련 전망 등이 영향
 - 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최근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마감
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관련주 약세 등으로 0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의장 발언 앞두고 경계감 등으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9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지속 등으로 하락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326.0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28.7원, 0.29% 하락). 한국 CDS 약보합

		8/20일	8/19일	전일대비			8/20일	8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597.1	5,608.3	-0.2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1%	3.87%	-6bp
	유럽	512.27	514.59	-0.45%		독일	2.22%	2.25%	-3bp
	중국	2,866.7	2,893.7	-0.93%		영국	3.92%	3.92%	-1bp
	일본	38,063	37,389	+1.80%	CDS 5y	한국	34bp	34bp	-0bp
	한국	2,696.6	2,674.4	+0.83%		중국	60bp	59bp	+1bp
환율	달러지수	101.37	101.89	-0.51%	위험 지표	EMBI+	-	407	-
	유로화	1.1130	1.1085	+0.41%		VIX	15.88	14.65	+8.40%
	엔화	145.26	146.59	+0.92%		WTI유	74.04	74.37	-0.44%
	위안화	7.1293	7.1395	+0.14%	원자재	구리	415.9	418.1	-0.53%
	원화	1,332.5	1,334.8	+0.17%		금	2,514.0	2,504.3	+0.3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보우먼 이사,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할 필요.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여전

- 보우먼 이사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. 아울러 1개의 경제 지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다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
- 또한 현행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역시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며, 통화정책의 제약적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나중에 점진적인 금리인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첨언. 다만 인플레이션 완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
- 시장에서는 보우먼 이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파적 시각을 피력했다고 평가. 다만 이전과 달리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는 내비치지 않았다고 진단
- 한편 뉴욕 연은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, 노동자 가운데 향후 4개월 이내 이직을 원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4.4% 기록. 이번 결과는 조사가 시작된 10년 전 이후 최고치. 노동시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향후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(Insigneo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로이터 설문조사, 연말 S&P500지수는 5600 예상. 9월에 첫 금리인하 기대

- 투자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, 미국 S&P500지수(8/20일 5597)는 연말에 5600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. 특히 AI 관련주의 상승세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분석. '25년에는 S&P500지수가 5% 올라 연말에 590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. 한편 첫 금리인하는 9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

■ ECB 렌 위원, 유로존 성장 전망 둔화 위험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

-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은 유로존 성장 전망의 둔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9월 금리인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. 인플레이션 목표(연율 2%) 달성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, '22년 10월 이후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

■ 이란,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

- 이란 혁명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간은 우리 편이며, 이스라엘 보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.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과거와 동일한 형태의 작전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정책금리 인하. 경기부진 등으로 추가 인하도 가능

- 금리를 3.75%에서 3.50%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고, 인플레이션 전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연내 2~3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시. 인플레이션(연율)은 내년에 2%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

■ 중국 정부, 미판매 주택 매입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용인을 검토

- 관계자에 따르면, 정부는 지방정부의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 발행 용인을 고려. 다만 지방정부는 금년에 이미 대규모의 특별채를 발행했기에 이번 조치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추가 발행이 가능한지 불확실

■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향후 정책은 연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

- 5년 및 1년 LPR을 각각 3.85%, 3.35%로 유지한다고 발표.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과 일치했으며, 지난 주 판공성 총재가 급격한 정책 조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도 부합. LPR을 이미 1개월 전에 인하했기에 추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태이나, 3/4분기에 지급준비율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(SC)
- 연준의 정책 행보가 인민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. 연준이 9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, 인민은행 역시 LPR의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(Bloomberg Economics)

■ 호주 중앙은행, 정책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

- 8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,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현 정책금리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피력. 아울러 연내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2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FOMC 의사록, 일본 7월 수출입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,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- Financial Times (The legacy of a thin market crash)

- 최근 미국 금융시장은 8월 초 경기침체 논란, 연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대폭 확대.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. 그러나 이후에 물가 및 소비 관련 양호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증시는 안정을 회복. 금리 전망 관련해서도 9월 50bp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감소
- 현재 주가는 7월 FOMC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, 경기침체 우려도 크게 완화. 이에 연준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대응을 모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. 한편 9월 0.50%p 금리인하는 연준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, 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
■ 미국 경기침체 우려, 진지한 대응이 요구되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 - 블룸버그 (Recession Guesswork Is Just as Reliable as It Sounds)

- 7월 실업률이 삼의 법칙을 충족시킨 이후, 12개월 이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15%에서 25%로 상승. 하지만, 이후 양호한 소비 및 노동지표 발표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은 다시 20%로 하락(Goldman Sachs)
-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데, 이러한 기본적인 위험을 15%로 간주. 이에 현재의 침체 가능성은 통상적인 시기보다 약간 높은 편
- 그러나, 경기침체 진단 관행에는 일부 오류가 존재하고, 불안정한 시장가격에 의존. 이에 과장된 예측이 포함될 가능성 농후(TS Lombard). 경기 둔화 위험 경고에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,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 논란은 시기상조

■ 독일의 경제 성장 둔화, 문제 해결을 위해 균형 예산 정책 탈피할 필요 - Financial Times (Germany's economy: down but not quite out)

-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경기 위축을 겪고 있으며, 이는 최근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의 부진에서 확인. 이러한 현상은 반세계화로 인한 수출 정체, 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, 공공투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
- 한편 정부는 균형 예산을 우선시하는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어,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더욱 저해.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시대적 재정정책 탈피와 적극적인 혁신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요구

■ 미국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, 바이드노믹스와의 차별화 필요 - Financial Times

(Kamala Harris should distance herself from Bidenomics)

- 미국 유권자의 60%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기대.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여타 국가와 달리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했기 때문.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정부 실현에 저항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
-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는 공공부채 증가 관련하여 명확한 대책이 부족.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거두는 것은 민주당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, 바이든 경제정책은 유권자들이 선호하지 않음에도 신성불가침과 같은 존재로 인식. 해리스 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

■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가계비용 절감 계획, 물가상승·재정적자 심화시킬 소지 - The Economist

(Kamala Harris's cost-of-living plan will end in failure)

■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 시점, 7월 FOMC 의사록에서 단서가 존재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Wall Street Will Scour Fed Minutes for Clues on the End of Balance-Sheet Unwind)

■ 중국 정부의 국채시장 대응, 인위적 개입보다 경제성장 회복에 집중할 필요 - WSJ

(China Says 'Please Stop Buying Our Bonds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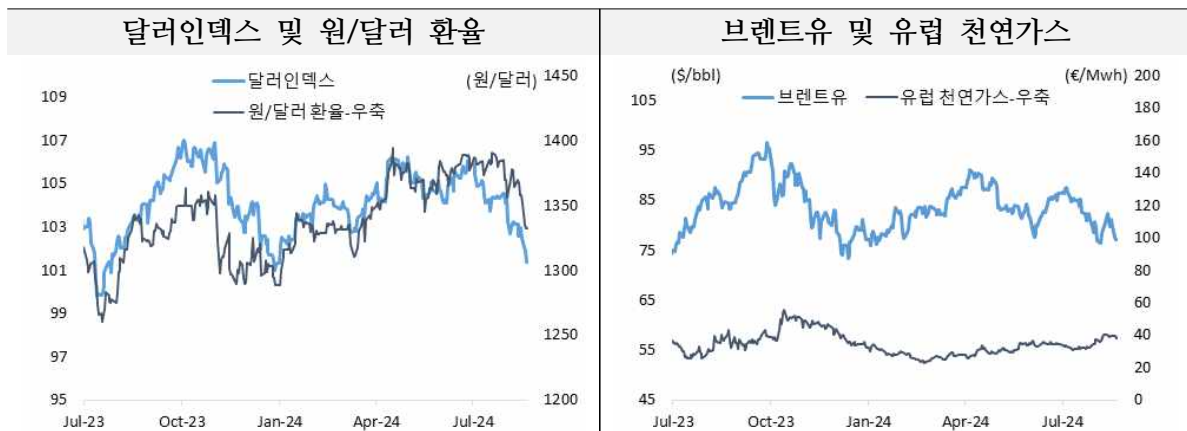
■ 중국 정부의 공급측 개혁, 수요 부진 등으로 과잉공급 문제 해결에 한계 - 블룸버그

(Xi's Supply-Side Panacea Has Lost Its Magi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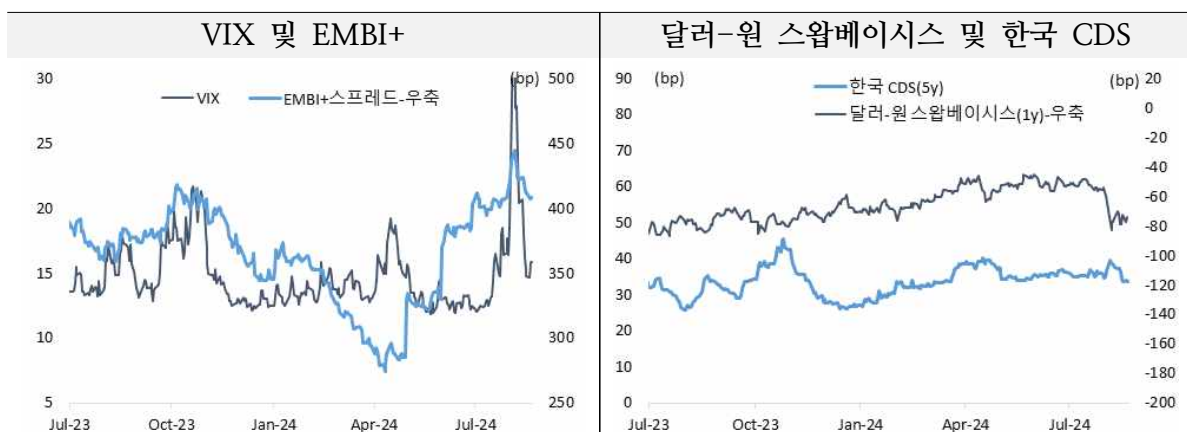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